

哲學의 問題及立場

李載薰

哲學의 問題는 古今을 通하여 決코 同一하지않다. 우리보다 먼저 또는 우리 받게 哲學을 하였으며 哲學을 하고 있는 者는 數多하다. 哲學史가 實로 여러 學派의 論爭으로 가득 차 있음은 ฟู라톤以來 其解決할바 論議할바 問題가 形式에 있어서나 內容에 있어서나 다른 것을 가지고 續出하고있다. 後時代의 哲學者는 前時代 哲學에 滿足하지 않으며 一國의 哲學者는 他國의 哲學에 滿足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호이엘박사가 헤-겔 哲學批判에서 말한바 같이 다른 時代의 哲學, 過去의 哲學을 우리의 哲學, 現代의 哲學으로 볼 수가 없다. 사람과 時代의 衰滅한다는 理由로써 何故로 哲學은 다른 哲學으로 變하는가 또는 後世사람들이 先人으로 붙어 繼承한바에 依하지 안코 自己가 獲得한 것으로 生活하고자함은 何故인가고 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나 어떤 哲學이든지 各其時代와 그 國土에 있어서는 無論한 卓越性을 가지고 있었으며 現在가지고 있음은 多言할바아니다. 卽 外見上學派의 對立과 論爭같이 보이지만 各其哲學의 職能으로 말하면 어떤 哲學이나 各其時代에 있어서 各其 現實的 生活의 反映으로서의 現實生活의 要求와 理想을 代辯함으로 그 意義와 特質을 獲得하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것이 平等的으로 無差別하게 同一한 價値를 가지고 通할 수가 없다고 말할 따름이다. 그 말하는 바 卓越性이라는 것이 本來모든 時代와 모든 사람에게 遍在的이며 모든 限界를 超越하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歷史적으로 限定되어 있는 特殊의 地位에 卽 하여있는 것이다. 우리의 要求하는바 哲學이 이 意味에 있어서 우리에게 卓越性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特殊한 問題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獨特한 立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考察하고자 하는바 問題가 되겠다.

사람 生活이 完全하다고 하면 問題될 것이 없고 오직 그 生을 亨樂할뿐일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問題는 어떤 個人이 好事的 또는 單理論的 興味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具體的 生의 地盤으로 붙어느러 남을 알 수 있다. 簡言하면 問題는 어떤 前提下에서만 나타난다고 하겠다. 問題가 時代에 따라서 또는 國土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그림으로 各其 다른 前提 卽

其具體的 生의 地盤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決코 固定的이 안이며 恒常動搖와 安定, 混亂과 秩序의 交渉안에 生成하는 歷史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 基據하고 있는 것임을 알 것이다. 야스펠스가 말하는 情勢Situation라는 것도 이와 같은 地盤에 不外하다. 우리가 이러한 情勢앞에 살지 않을 수 없음에 限하여서는 哲學은 多 哲學이며 特殊的이 안이면 안 될 것이다. 아모리 世俗的 現實生活의 流轉變遷함을 不顧하고 그것의 制限을 받음 없이 오죽 哲學의 理念 그 本質만을 追求한다는 哲學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情勢안에 生存하고있는 人間의 立場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哲學의 本質價는 도로혀 歷史的 變遷其者앞에 볼 수 있는 것이 안일가. 問題가 이같이 歷史的으로 制限되어있는 以上 其 眞理 內容이 또한 歷史的 制限을 離脫할 수 없다는 것은 無論이다. 現代가 現代로서의 特殊的 獨自的 問題를 갖이고 있다고 하면 現代에 生存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問題中の 問題라고할 性質을 갖이고 있는 것이며 現代가 哲學的으로 苦悶하며 새로운 思索을 强要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現代가 過去와 끈을 수 없다든가 其 成果라고하면 그 問題는 歷史的, 本質的, 必然的 歸結이라고 볼 수 있다. 故로 이 問題라는 것은 個人이 任意로 만드려 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前에 우리는 그러한 問題를 갖인 世界안에 놓여있는 것이며 따라서 問題를 갖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世界에 生存하고 있는 者에게 있어서는 本質的이라고도 말하겠다. 우리는 이 問題를 廻避하고서는 現代社會에 살 수 없다. 여기에 問題의 歷史性, 社會性이있다. 現代의 問題의 正體를 把握하려고할 때 現代에 앞서있는 近代生活及其原理을 삶이지 않으면 안 될 必要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二

周知하는 바와 같이 近代生活은 文藝 復興期로 붙어 始作된 人間의 自我 發見史의 發展이라고 하겠다. 이 自我 發見이라는 것은 곧 中世主義에 對한 反抗이 었든 것이다. 教權에 對한 反抗으로 붙어 外的 物質的 存在와 其他 모든 權威로 붙어의 束縛拘束을 받지 안는다는 自由로운 精神의 發見이라는 데 其 歷史的 意義를 갖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各個人이 그 生活의 自由를 要求하였다. 信仰의 自由 思想의 自由 所有의 自由같은 것은 近世文明의 原動力이며 그네들의 生活의 地盤이었다. 宗教改革은 그 글자와 같이 (프로테스트) 이다. 教理보다 하느님의 말씀으로서의 聖書와 個人의 體驗을 尊重한 것 政治에 있어서 吾人의 幸福을 保障한다는 民主主義的 形態를 取한것 經濟에 있어서 個人의 利益을 目的으로한 自由競爭 科學에 있어서 形而上學으로 붙어 解放을 얻어 自然科學, 精神科學, 歷史學, 社會學같은 것으로 各各分

化獨立하게 된 것은 近世人的 要求의 實現이었다. 그러므로 問題되는 것은
 오즉 이러한 支配的 存在이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人間的 自由로운 活動
 의 舞臺이었으므로 神學에서 解放된 哲學이 向하는 바 또는 그 職務로 하는
 바가 이 自由를 立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데 있는 것은 조금도 不可思議
 한것이 아니다. 物質的 外的 條件의 制約을 받지 않는 純全한 精神의 獨立,
 意識의 問題가 眞正한 問題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必然性이 여기 있
 다. 當時 思想界를 騷亂시킨 데칼트哲學의 出發點이 「나는 생각 한다 故로
 나는 있다」 Cogito ergo sum에 있었으나 果然 그 時代相을 무엇보다도 잘
 代言하고 있다. 「나」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떠날 수 없는 것 即 存在보
 다 意識을 根源的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哲學을 理性哲
 學이라든가 主觀主義哲學이라고 말하나 其 根本에 있어서는 別로 다름이 없
 다. 結局意識을 通하여 存在를 觀念化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客觀의 世界라
 는 것은 主觀이 能히 構成할 수 있는 것이며 自由로 이 創造할 수 있는 世
 界였다. 칸트가 英國록크와 휴-즈의 經驗的 主觀에 對하여 先驗的 自我라든
 가 超個人的 意識一般 Bewusstsein überhaupt 같은 것을 세웠지만 그것이
 라도 結局個人的 意識이 생각한 產物에 不外하다. 데칼트의 있어서 「나는 생
 각한다. 故로 나는 있다」라는 것이 칸트에 와서는 主觀이 對象에 依存하는
 것이 아니요. 客觀的 對象이야말로 主觀의 先驗的 形式이 構成한다는 主張으
 로 變容하였을 따름이다. 合理論과 經驗論의 綜合이라고 하지만 그 根本精神
 에 있어서는 同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즉 이때에 록크와 휴-즈의 悟性
 의 研究로 붙어 始作된 認識論과 知識 方法論이 哲學의 重要事로 되었다는
 變化를 보이지만 이것은 無論過去の 獨斷的 形而上學에 對한다는 意味도 있
 지만 그것보다도 根本的인것은 이것을 問題로 하게하며 그 哲學的 立場을
 規定한것은 依然히 當時自由로운 精神으로 自由로 研究한 自然科學의 諸分
 野에 있어서의 科學的 知識이었다는 것을 看過하여서는 안된다. 現實世界라
 는 것은 近代에 있어서는 이 科學의 世界에 不外하였다. 認識論과 方法의 問
 題에 沒頭한것은 結局이 科學的 知識에 對한 反省이 必要하였다는것 또는
 科學的 知識의 基礎를 살인다는 그것이 무엇보다 緊要한일이기 때문이었다.
 要컨대 모든 權威를 일어버린 近代哲學이 全體로 그 問題를 各個人的 內部
 的 體驗이라든가 自我라든가 表象意識의 世界에 沈潛함으로써 發見하게 된
 것은 結局 이러한 現實的 地盤에 立脚하고 있었든 까닭이다. 當時의 社會生
 活이 比較的 安定되어 있었으며 無風의 地帶에 놓여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世人은 近世哲學을 抽象的 觀念論이라는 惡名을 붙어 갖이고 輕蔑하거나 非
 難하는 이가 많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哲學이 各其時代의 現實生活을

超越하지못함에 限하여서는 近世哲學은 近世生活을 生活하는이로서는 반드시 갖이지 않으면 안 될 哲學이라고 할 것이 아닌가. 그것 亦是存在를 보는 한 方式이었다. 그것을 非難하며 批評하는것은 近代와 다른 現實的 地盤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近代主義가 다시 더 發展하지 못하고 桎梏가 되어 問題가 되는 것은 歷史的으로 다른 情勢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卽 現代의 情勢는 近代主義의 自己矛盾을 暴露시키고 있다고 할가 임이 말한 바와 같이 近代에 있어서의 客觀世界는 사람의 意志대로 動하는 自由의 天地 사람이 自己主觀으로 構成하는 世界이 었든 것이 그것이 現代에 이르러 사람에게 등을 지며 怨讐의 態度를 가지며 우리의 存在의 威脅으로 날아나고 있다. 그것이 決코 個人의 創造하는 自由의 天地가 얹이고 조고마한 主觀으로는 어떻게 道理由 없는 儼然한 客觀의 世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데있다. 이러한 世界안에 自己의 存在를 發見할 때에 사람은 自己存在의 不安과 動搖를 感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또한 當然한 일이다. 이리하여 이 世界는 생각하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自我意識은 스사로 여기에 沒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自由主義는 모든 文化領域에 있어서 더욱이 宗教와 經濟에 있어서 가장 深刻한 自己矛盾을 暴露시키고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問題에 막다른 必然性을 보게 된 것이다.

*같이 自我發見이라고 하지만 文藝 復興期로붙어 啓蒙期까지를 大略 自己客觀化라고 볼 수 있으며 其後獨逸哲學에 있어서는 自我主觀化라고 區別함이 正當하지만 여기에는 그 詳說을 避하였다.

*自由主義其者를 全體로 이와 같이 批評함을 不當하다고 생각하나 여기에 詳論하지안는다.

*Santayana; Egotism in German Philosophy.

*M.Weber; Religions Sociologie I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參照

이 새로운 問題라는 것은 다 아는바와 같이 存在와 物質이라는 것에 다시 눈을 뜨고 새로운 눈으로 돌보게 되었다는데 始作된다. 社會的 存在가 意識을 決定하는 것이지 意識이 存在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때에 날아나는 것도 決코 偶然하다고 할 수 없다. 近世에 있어서는 우에서 말한 바 같이 最初에 받은 것은 意識이었으므로 自己意識이라는 것으로 붙어 한거름도 받게 나갈 수 없었으며 따라서 存在를 無視하며 物質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哲學者가 容易하게 自己頭腦안에서 本質을 論하며 理想을 追求하며 價値와 妥當의 問題에 沒頭하고 있었음은 또한 不可思議한 것이 없다고 하겠다. 外部的 權威를 承認하지안는 自我가 歷史的 社會的 生活로 불

어 遊離하게 되며 抽象的이되고 그 認識이라는 것이 肉體를 갖이지 않은 卽 이 地上에 발을 대이지 않는 人間의 認識이었음은 또한 當然한 일이다. 이 때문에 歷史的 社會的 聯關안에 人間의 本質을 보고저 하지 않았으며 불 必要 쫓아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近代의 問題는 近世에 있어서는 無論現實的이었다는 것은 前論한바이오. 오즉 現代의 歷史的 情勢가 그 問題를 非現實的으로하며 그것의 存在의 權利를 奪取하고 있을 따름이다. 卽 現代에 있어서는 사람은 自己의 存在를 다시 自己主觀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社會라는 世界안에서 自己의 存在와 自己가 向하여나아갈 方向을 잡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무엇보다도 肉體를 가진 또한 現實的 社會生活의 地盤으로붙어 떠날 수 없는 것으로서의 自己라는 것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自己와 世界의 關係라는 것은 따라서 從來에 말하는 主觀과 客觀의 理論的 또는 認識論的 問題가 아니고 爲先人間存在의 歷史的 情勢其者를 理解함으로붙어 出發하여야하게 되었다. 現代의 歷史的 地位를 理解하는 것은 그러므로 곧 自己와 世界의 關係를 알게 되는 土臺가 되며 指導力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靜觀的 認識論의 問題가 아니라 實踐的 行爲性을 갖고 있음으로 從來의 形而上學과 觀念論哲學에 對한 不信과 輕蔑이 또한 이곳에서 이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現代人은 何如튼 오즉 存在에 生活에 社會的 實踐으로 向하고 움지기고 있다. 움지기고 있지 않으면 이 時代에 살고 있다는 感을 잃어 버린 것 같이 생각하고 何如튼 움지기고 있다. 現社會는 어떤 곳으로 轉換할 必然性을 갖고 있다는 一種의 信念은 스사로 社會生活의 動搖와 不安한 空氣를 띄우고 있다. 時代의 奔流는 右顧左視할 餘裕도 없이 다만 目前에 부닥친 難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日常見聞하는바 世相이다. 近世와 같이 인제는 고요한 밤에 自己안에 있는 神秘의 世界에 드러가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氣力을 잃어 버리고 自己의主義와 主張을 理解하지 못하며 援助하지 않는者를 異端者로 敵視하여 排擊하지 않을 수 없다는 實로 緊張한 氣勢를 보이고 있다. 世相의 窮迫, 經濟恐慌, 社會生活의 不安動搖, 政治와 社會制度의 矛盾 等 여러 가지 缺點이目前暴露된 現代의 狀勢에서 살고저 하는 사람에게는 前과 같은 宇宙의 神秘라든가 神과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오즉 商品과 技術의 世界가 있을 따름이다. 사람의 어떠한 勞作이나 勞働이나 人格的 精神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商品化하지 않으면 안 될 性質을 갖고 있다. 近代의 自由라는 것이 結局 強食弱肉의 利己主義의 變容以外的 아무것도 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現實力은 그리 하여 其理論을 壓迫하고 그것의 改革을 要求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歷史的 情勢에 忠實한 愛智者인 哲學도 自己의 生命을 사랑하며 그 尊嚴性을 維持하려면 必然코 他에 轉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그것이 從來의 哲學과 같이 內在的 靜觀이 아니고 現實的 人間生活에 있어서의 矛盾에 沈潛하며 거기로붙어 自己의 活路를 開拓하여 나가고저 함은 또한 當然한 길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 矛盾으로 말하면 現在에 있어서는 靜的 對立과 같은 綽綽한 餘裕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兩立함을 許容할 수 없는 性質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한 그것이 個人의 觀念과 行爲에 있어서의 矛盾이 아니고 社會的 存在로서의 그것임은 多言할바아니다. 이러한 社會的 存在가 따라서 自己에 發展力을 가지고 있음으로 스스로 未來의 關心을 갖게 되며 實踐으로 向하며 實踐에 到達하고 있음은 모든 事實이 證示하고 있는 바요. 今日 헤겔의 辯證法的 論理가 새로운 意味를 가지고 復活하게된 것도 또한 偶然한 것이라 할 수 없다. 歷史的 情勢에 基한 哲學이 이 發展力을 把握하려고 하며 그곳에 自己의 職能을 찾고저함은 容易이 推察될 것이다. 그것이 神도 안이며 理性도 아니며 또는 超越者의 奇蹟的 行爲에서도 發見할 수 없게 되었다. 問題의 所在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天上이나 地下이나 또는 過去나 未來에도 있지 않다. 오즉 歷史的 現在의 情勢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삼으려면 回顧的, 觀想的, 立場에 있어서는 不可能하다는 것은 多言할 必要가 없다. 辯證法的, 實踐的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現代에 있어서는 哲學的 精神은 다만 客觀的 狀勢가 어떻다는 것을 理解함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實踐과 不離의 關係에 있는 生動的임을 充分이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써 보면 問題의 變遷이나 歷史的 發展이라는 것이 單理論上의 發展이라든가 單概念上의 一種精微한 分析을 意味함이 아님은 明白할 것이요. 그것이 人間生活의 全面的 現實生活우에서는 立場其者의 變動을 要求하며 또는 意味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적어도 今日 우리에게 賦課된 問題는 이런 性質을 가지고 있다. 哲學이 그 形式에 있어서나 內容에 있어서나 또는 方法에 있어서나 스스로 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말하면 或은 哲學을 研究하는 者는 한 流行을 따르는 輕佻浮薄하며 無節操하며 時時로 變心하는 者라고 非難하는 者가 있을는지 모르나 앞에서 말한 바로 알겠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正히 反對이다. 即 哲學이 歷史的 情勢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結局從來의 閑却되어있는것 等閑視되어온 人間存在의 깊은 곳을 뚜르며 숨어있는 것을 새로운 빛으로 밝히고저하는 即 哲學이 自己를 完成하고 저 하는길을 밟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或은 自己의 活路를 찾는 것이라고도 말하겠다. 換言하면 哲學이 自己의 生命의 뿌

리를 歷史에 박으며 歷史的 存在로서의 人間的 具體的 活動 또는 그것의 表現이라고 볼 것이다.

三

以上論한바로써 우리는 今日 哲學의 問題의 所在가 어느 곳에 있으며 또는 무엇을 問題로 하지 않으면 안될가를 大略 밝혀왔으나 그것이 從來의 問題와 다르다는 것만은 알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나 우리가 從來의 問題와 다른 問題에 逢着하였다는 것은 앞서서도 暫問 말하였지만 從來의 哲學의 問題를 問題로써 規定한 立場과 다른 立場에서 있다는 것을 表明하고 있지 않은가. 問題를 規定하고 있는 것은 벌써 우리의 立場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歷史적으로 限定되어있는 現實의 支配的 存在가 問題가 된다고 하면 現代의 그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같이 다른 立場에서는것을 強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問題와 立場사이에는 必然的 關係가 있다. 따라서 問題의 現實性은 오즉 이 立場에 있어서만 볼 수 있는 것이며 또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故로 어떤 問題이든지 그것이 神이나 超越이나 純粹意識이나 할 것 없이 적어도 그 問題가 現實性을 獲得하고 있음에 限하여서는 어떠한 立場에서있음에 비로서 날아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立場의 立場 即 無立場이라는 것도 結局은 規定을 받은 한 立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立場을 超越한 그곳에는 아무것도 問題될 것이 날아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안일가. 그곳에는 오즉 完成된 世界가 있거나 不然이면 靜死의 世界가 있을 뿐이요. 적어도 歷史上的 哲學으로서는 이러한 無立場에서 있는 哲學같은 것은 없다. 모든 哲學은 以上말한바 歷史的 情勢에 基한 限定된 特殊한 哲學이다. 따라서 有限한 立場에서있음은 무엇보다 哲學史其自身으로부터 배와 아는 바이요. 또한 現代의 特殊한 情勢가 스사로 다른 問題를 가지고 다른 哲學을 要求하는 必然性이 여기에 있음을 알겠다. 그러면 이러한 種類의 哲學이 어떠한 立場에서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前論한바에 依하여 오즉 무엇을 우리가 問題로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써만 反省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故로 우리는 立場 그 者의 問題는 오즉 이 問題其者의 本質을 잡으므로써 闡明할 수 있는 것이다. 即 問題는 우리의 立場을 反省시키고있다. 그러나 問題가 이 같은 反省前의 前題下에 이러나고 있음은 無論이다.

問題는 다시 새로운 問題를 낳는다고할가 우리는 여기에 그 問題의 正體를 잡으려면 深思再考할 問題가 있다. 위에서 考察한바로 問題의 歷史性社會性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렇다면 그 問題는 다시 우리의 問題이라는 것을 떠나있을 수 있는 것일가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即 現代의 狀勢에 基하

는 問題는 現代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同一한 性質과 價値를 가지고 있는 것일가. 現代의 많은 哲學은 果然 우리의 哲學으로 採用할 수 있을가 없을가 問題其者가 亦是 나에게 있어서 依然히 問題가 되어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立場其者도 아직 明確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現代의 狀勢에 基하는 우리의 生活에 있어서의 矛盾이라고하는 것은 世界共通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日常生活에 있어서 우리 生活의 困難과 矛盾에 對하여 알고저하면 世界一般의 矛盾과 困難을 말함을 듣고 본다. 卽 그 共通的 一般的 法則을 우리에게 適用하고자한다. 萬一 特殊的 問題를 普遍的의것의 一樣相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矛盾困難이라는 것은 結局世界一般의 그것의 範圍밖에 나감을 許할 수 없다. 論者의 말과 같이 果然 그것이 共通的이며 等質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世界의 哲學者와 같은 立場에설 可能性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나 이 問題의 共通 또는 立場의 一致라는 것이 果然事實로 可能한 것일가 萬一 可能하다고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特殊한 解決을 要求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問題로 하는바 問題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特殊한것이며 따라서 要求하는 解答도 特殊한것이다. 一般的 抽象的 法則을 具體的 特殊的 者에 適用하려고 하는 것은 이 問題를 具體相에 있어서 잡으려고 함이 아니라 認識의 形式에 드러마추고저하는 知的 合理化의 證明밖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닐가. 그것은 一般的 概念으로 特殊를 包攝하고자하는 形式論理이며 그것으로 特殊的 事實의 存在를 構成하고자하는 로고스의 暴力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에 其 一般的 世界 또는 一般的 狀勢라는 것을 否定함은 아니다. 그것과 現實의 具體的 世界사이에 密接한 關係를 보는 同時에 相當한 間隔이 있음을 오즉 말할 따름이다. 이 두 世界는 決코 同質同等한것이 아님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世界가 같이 存在할 意義를 認定할 수도 있는 것이며 우리가 世界各國의 哲學을 배우고 研究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哲學의 問題는 그러한 哲學書에서 發見하든가 있는 것이 아니라 依然히 特殊的임을 不免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分明할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는 何如튼 이 特殊的 問題라는 것이 問題中에도 問題되는것이며 다른 모든 問題라는 것은 여기로부터 派生되어 나온 것이거나 그것의 한 變形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一般的 共通的 問題에 自己를 沒入시키켜 沈沒시킬때는 우리는 우리 問題를 도로혀 隱蔽시키며 그 缺陷을 가리며 自己의 要求하는 改革의 必要를 糊塗해버리는 傾向이 潛伏해있음을 警戒하여야한다. 歷史的, 社會的 人間의 生活을 우리는 人類의 하나로 世

界文明史라든가 人類社會組織의 變遷과 進化의 過程을 眞實한 意味로써 叙述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事實 내가 살아온 歷史 또는 社會는 特殊한 組織과 變遷發達의 經路를 밟아온 것이 아닌가. 이것을 看過하거나 無視하고 共通的의 것만을 問題로 할 때는 外見上 現實的 地盤에 忠實한 것 같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그곳으로부터 떠나있는 것이며 따라서 自己의 存在를 抽象化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우리는 全人으로서의 活動 또는 實踐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卽 自己의 唯一한 哲學이라는 것을 期待하기가 太半不可能하다고 할 것이 아닌가. 一般狀勢가 如斯如斯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特殊한 樣式을 가지고 있으며 特殊한 問題를 이르기며 特殊한 解決을 催促하고 있는가를 看過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이 特殊化라는 것은 如何히 可能的가 特殊한것을 特殊的 存在로 規定함은 무엇일까.

지금 말한바 우리가 생각할 바 否定할 것은 單世界의 共通的의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生活全面에 있어서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一般的 狀勢라고 함은 우리 現實 生活感과 相當한거리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絶對性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絶對性을 가지고 對하는 것은 主體的 活動과의 關係를 가지며 結合性을 가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닐까. 그곳에 特殊의 情勢가있으며 그 特殊的 情勢라는 것은 바로 自己狀態에 不外하다. 情勢와 自己와를 이와 같이 보면 本來未分の 境地에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分離되며 矛盾을 이르킬때 비로서 問題性을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特殊한 것을 特殊한것으로 卽 情勢를 把握하려면 結局自己가 自己를 自覺함에 있을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나의 말하는 自覺이라는 것은 後에도 言及 하겠지만 그것은 외히테가 말하는 「事行」 Tathandlung 라는 것이 아니며 또는 自己가 自己의 作用을 對象으로 하므로 그것을 反省하며 主觀과 客觀이 結局은 同一한 自我이라는(西田傳士) 非實踐的의 것이 아님은 明白할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自己라는 것은 個人意識의 統一의 主體가 아니라 社會的 存在로서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具體的, 社會的 存在로서의 그것이 特殊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結局 그것을 一貫하고있는 內面的 어떤 固有한 生命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고 할 것이 아닐까. 그것을 나는 여기서 特히 主觀性(客觀性에 對한 主觀性이 아님은 無論이다)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이 主觀性의 生成 또는 現實化라는 것이 곧 그 情勢를 把握한다는 것일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問題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일 問題와 立場사이에 必然的 關係가 있다고 하면 그 問題와 立場은 우리의 反省前에 아니 아모리 反省하여도 더는 넘어

될 수 없는 이 主觀性에 依하여 벌써 他面規定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問題의 具體性 異質性 特殊性의 基礎를 여기에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닐가. 이러한 問題로 말하면 우리의 現實 生活感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生活實踐에 있어서 가장 切實하고 緊迫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漸次論하겠지만 世上에 同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라이브닛츠의 單子論의 哲學을 끌어 내어 가지고 評論하기까지도 가지 않는다.

맑스는 후오이엘바하가 自己의 人間學을 具體的이라고 함에 對하여 그것은 現實社會로부터 抽象된 類概念이라고 排斥하며 具體的 實在的 人間은 社會化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社會人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現實社會가 歷史的 產物이라고하면 그 歷史의 發展의 動力은 共通한 階級的 對立에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全社會를 레린의 말같이 同質的 貨幣의 事務局 또는 工場으로써만 規定할 수는 없다. 라스키-가 共產主義를 批評하는 말에 世界는 너무나 複雜하기 때문에 어떠한 藥으로도나 普遍的 效力을 얻을 수 없는 故로 世界에 對한 萬能藥은 없다. 우리의 問題에 對한 解決은 恒常制限되어있는 것이며 아모런 훌륭한 解決이라도 部分的이며 또한 不完全하다. 社會整理의 方法은 하나로서는 어떤 方法이나 到底히 우리가 만나는 雜多한 要求에 應할 수 없다. Laski(Communism P. 244)이 共通化할 수 없다는 것에 聯關하여 나의 議論보다 爲先 歷史上的 哲學을 一瞥하고저한다.

같은 自由主義라는 地盤에서 자라나면서도 國情을 달리하므로 各其가지는 哲學이 여러 가지 變形된 다른 哲學으로 나왔다. 歐羅巴를 標準하여본다 하여도 英國에 있어서나 佛蘭西에 있어서나 獨逸에 있어서나 各各 다른 것이었으며 決코 同一한 것은 없다. 같은 時代에 있어서 英國에서는 經驗實證을 尊重하며 實理와 實行을 主로하는 現實主義의 經驗哲學을 가지고 있으며 政治에 있어서 民主主義 經濟에 있어서 自由主義 倫理學에 있어서 功利主義 自然科學에 있어서 進化論을 主唱한 것 같은 것은 생각건대 他國에서는 볼 수 없는 模倣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가 英米國에 있어서 將來에라도 獨裁政治같은 것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資本主義經濟組織의 變遷 또는 產業制度의 改革같은 것도 英國에 가장 일찍이 나타난 것이지만 길드사회 같은 것은 볼 수 있으나 無產階級獨裁의 社會思想이라든가 直接行動같은 것은 企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佛蘭西의 實證哲學이나 天才的 直觀主義의 生命哲學같은 것 또는 革命的 政治思想이라든가 空想的 社會主義와 산지칼이즘 같은 것의 發達과 對照하여볼 때 이 差異를 우리는 問題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닐가. 獨逸哲學은 大概神秘主義的이며 理想主義的이다. 英國哲學에 比하면 非現實的이며 非功利的이며 佛蘭西에 比하면 非革命的이며 非天

才的이다. 오즉 知識의 體系와 組織을 尊重하는 點에 있어서는 亦是 獨逸人의 獨特한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에 있어서는 超越이라든가 絶對라든가 普遍이라는 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政治에 있어서는 國家主義的 形態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헤-겔의 國家哲學 같은 것은 眞實한 獨逸人의 代表的 思想이라고 말할만하다. 功利主義가 人格主義로되며 物質이 精神化하게됨은 맑스의 社會主義가 이 國土에 있어서는 國家社會主義가 되지 않을 수 없는 必然性을 가지고 있다. 今日 哲學徒의 人氣를 끌고 있는 하이데가의 哲學이라도 依然히 이런 特殊한 現實的 基礎地盤을 떠나있는 것이 아니다. 專門哲學說은 덮어놓고 이 哲學者의 大學總長就任演說만 보아도 氏가 現代라는 情勢에 있어서 獨逸國民의 한 哲學者로서의 自己任務를 깊이 自覺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보면 어떤 生活이나 思想이나 各其固有한 主觀性을 떠나서는 其 現實的 生의 地盤을 잃어 버린다는 것을 理解할 수 있다. 無論이 主觀性이라는 것은 社會生活안에 發生하며 그 內容은 時代의 變遷에 따라 또는 社會의 進化에 따라 自己를 改新하여 나간다는 것은 自己 一個人의 生活에 비치워 보아도 明確히 自認할 수 있는 것이다. 何如든 自己가 自己로 산다는 것 問題가 있다는 것은 이런 特異한 世界를 떠날 수 없는 것이며 이런 世界는 또한 이러한 自己라는 것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容易히 推察될 것이다.

果然前言한 바와 갓치 우리의 外部的 生活에 있어서 모든 事件과 行爲行動같은 것은 共通的으로 抽象化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同時에 抽象하며 通約할 수 없는 어떤 主體의 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따름이다. 日常生活에 있어서 우리의 喜怒哀樂으로부터 모든 行爲行動에 이르기까지 그 具體的 現實生活 感其者로 말하면 이러한 主體의 活動의 表出이며 象徴이라고 볼 것이 아닐가. 이같이 體驗되는 限에 있어서는 그것은 全然 個別的 個性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現實生活이 社會生活의 變遷에 따라 다른 形態를取하게됨은 無論이지만 그러나 이런 社會的 限定其者가 또한 自己의 現實生活을 個性化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本來 個別的 自己라는 것은 이와 같은 外部的 現實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自己生活의 問題라는 것은 이 外部的 現實의 問題일 것이며 反對로 外部的 現實의 問題는 自己自身の 問題가 된다고 말할 것이다. 具體적으로 存在하는것은 이 兩者의 生命的 雙關者에 不外하다. 이 意味에 있어서 自然이라든가 社會라든가 他人이라는것을 우리는 單客觀的 對象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말하자면 自己生活의 全體라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存在가 假令 自己에게 對立하고있다 하여도 우리는 依然이 이 對立하고있는者 가운데서만 自己를 表出하며 自己의 形姿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外見上은 二지만 그 實에 있어서는 一이며 一인 同時에 二라고 말할 것이다. 矛盾과 問題가 한 方向을 가지며 自己에게 絶對性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 그 根據가있다. 何如튼 이러한 것으로서의 存在를 우리는 여기에 實在의 單位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러한 單位는 世上에 無二한 唯一한 實在의 純相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個性的이다. 個性이 個性的 存在로 있을 수 있는 것은 單位가 單位로 있을 때이다. 單位가 單位로 있을 힘을 잃어버릴 때 여기에 共通化의 傾向을 보게 되며 이 共通化는 結局自己와 世界의 分離가되며 또는 自己의 世界를 喪失하는데 源由하고있다. 이 喪失이라는 것은 形式論理에서 말하는바 二者가 同時에 同一한 場所를 占領한다는 矛盾을 犯할 때 가장 深刻한 變化를 보이게 하는 現象이다.

이와 같이 論하고보면 人間의 現實的 存在는 單社會的 存在로 規定하므로 共通化하여 其 以上不問에 附할만큼 平板한 것이 아니라 그 主觀性和 分離될수없는 個體的인것임으로 一般的 法則을 定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 만일 이런 社會的 存在가 急激한 變遷을 만난다면 그것은 同時에 主觀性的 難破를 意味함이다. 主觀性이 甚히 動搖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動搖하고 있을 때는 아직도 脈이 뛰고 있을 때이요. 其 程度를 넘치면 아조 理沒되어 自己가 自己를 떠나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 타고 他者가 되는가하면 그것도 不能하고 말하자면 나도 아니며 너도 아니라는 中性的 存在라고하겠다. 本來의 自己와 交渉의 길을 끈케되며 여기에 無意識的으로 現實을 隱蔽하게된다. 隱蔽하며 本來의 自己로부터 逃亡하지안는다면 生存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으로 自己를 蹂躪하며 疎外하며 他者에 自己를 賣渡한다는 非本來의 狀態에 드러가게 되는 것이다. 自己 本來性에 살려고 하면 目前的 絶壁과 深淵을 對할뿐이다. 이러한 運命을 가진 存在를 果然 共通化할수있을가 哲學的 思索은 바로 이 存在의 속을 깊히 뚫너드러 가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哲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哲學的 立場은 無比한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닐가.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無比함을 自覺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日常見聞하는 바와 같이 어떤 思想이든지 生活의 理想이든지 容易히 얻을 수 있으며 安價로 求할 수도 있는 것이다. 他人이 問題로 하는 것을 바로 自己問題같이 생각하며 自己에게만 限한 問題라는 것을 잡지 못하게 된다. 絶望에 가까운 病을 가진 사람이 醫師의 宣告에도 不顧하고 이것저것 헛되이 藥만 求하고있음과 다름이 없다. 病名은 同一하다하여도 醫師는 여러 가지 關係로 그 藥에

加減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같이 우리 生活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共通性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으로부터 나타나는 問題는 依然히 그 特殊性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病者가 다시 健全한 身體를 恢復함같이 우리 問題라는 것은 自己本來의 世界에 도라간다는 그것에 있다. 이러한 世界存在로서 우리는 哲學을 한다. 自己와 世界가 分離되어있다하여도 分離되어있지않다하는 前提를 떠날 수 없다. 哲學은 이것을 自覺함으로부터 始作된다. 哲學의 地盤이라는 歷史的 現實的 存在라는 것은 이러한 自覺에 있어서 우리 哲學의 立場을 規定하고있는 具體的 實在임을 알겠다. 이러한 自覺的 精神活動이 自己를 意識內容에 나타내고져 할 때 비로소 客觀的 存在로써 限定받고있음을 참으로 認識하게 되는 것이다. 不然則 그것은 單事實을 그대로 現出할 따름이다. 存在가 意識을 決定한다하는 事實을 認定할때 우리는 이러한 存在를 自己의 것이라는 意味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具體的 現實的으로 存在하는것은 언제나 이 二者의 統一으로써만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具體的임에 限하여서는 一般的이 아니고 個體的임을 알 것이다. 우리의 意識이라는 것은 中間的 存在이다. 即 意識을 超越하고 있는 것은 意識의 前에나 後에 나같이 있다. 前面의 것은 社會的 存在이며 後面에 있는 것은 主觀性其者이다. 因하여 本來 社會的 存在라는것이 이러한 主觀性으로부터 떠나있을 수 없는 故로 또한 主觀性을 無視하거나 重要視하지않으면 社會的 存在라는 것의 一般化 共通化가 여기에 容易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압서 말한바와 같이 特有的 問題 따라서 特有的 哲學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必要ञ야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것 잡으려고 하여온 것은 이 二者의 分離되어있지안는 그대로의 實相 그것이 問題이었던것이 아닌가. 이 具體的 實相으로말하면 前論한바 오직 이 主觀性이라는 것을 따듯한 關心을 가지고 自覺할때에만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主觀性이 이때에 비로소 自己의 世界를 볼 수 있으며 把握할 수 있는 때문이다. 其 把握된 世界가 即 情勢이다. 이때에 우리의 日常生活과 또는 業務에 잡히여 自己를 잃어버리고 있는 現實的 自己에 그 處할 世界를 보여줄 뿐 아니라 其 把握自身은 反面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主觀性이 現實化) 不可避할 命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嚴肅한 命수에 쫓는다는 것이 即 實踐이며 實踐의 根源이 또한 여기에 있음을 알 것이다. 이런 實踐의 根源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금 우리는 哲學思索에 있어서 右往左往 여러 가지로 苦悶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푸라톤이 哲學者되기가 至難하다는 말이 여기에 깊은 自省을 일으키고 있다. 何如튼 이와 같이 實踐的일사록 그 問題가 漸漸더 特殊性을 가지고 있음은 自명한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러한 特殊한 世界안에 그

러한 存在로서 놓여 있음을 證示하고있음에 不外하다. 結局自己의 意識이라는 것도 自己의 것으로서의 空間的 世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現實的 存在가 될 수 없는 것이다. 故로 自己의 마땅이 할 바를 안다는 實踐은 同時에 自己의 處할 世界를 안다는 것 또는 獲得하는 것을 意味하게된다. 이 世界라는것은 歷史的 社會的의 것이며 主觀性은 그 안에 發生하며 그것을 지키며 發展시키는 動力이다. 時間的 行爲이지만 能히 永久的 意義를 가지는 者이다. 이와 같이 이 二者는 實踐的 辯證法的 性格을 가짐으로 現實的 우리의 固有한 生活이 組織되는것이다. 그것은 具體的 存在의 二側面에 不過하다. 다시 말하면 哲學의 立場은 이러한 根源的, 具體的 存在로 規定되어있음에 限하여 哲學의 本質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 根源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根源을 떠난 知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 內面的 必然性을 우리는 經驗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現實의 偉力은 그러한 知識이 存在權을 否定하게될 것은 明白하다. 何如튼 우리가 무엇을 實踐하려고하는 以上 이러한 根源的 存在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疑心할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가하는 課題앞에섰는 것은 이러한 根源的 存在의 힘으로써 되는 것이다. 이 課題는 우리에게 獨自的인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日常生活에 있어서 目前의 事物과 利害損得의 念으로 自己를 잃고 있지만 그 表皮를 벗어버리고 自己의 主觀性을 自覺할때에 누가 우리와 같은 이 課題앞에서지 안을 수 있을가. 그러면 이 課題를 잊어버리게하며 無關心하게하는 現實生活의 모든 矛盾을 暴露시킴으로써 自己을 意識하게할때 우리는 共通한 問題와 共同 社會的 氣分을 가지고 이 現實生活의 地盤의 方向의 意味를 잡으며 그곳에 即 한 實踐의 活動을 깊이깊이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바 自己意識이라는 것이 非社會的 抽象的 自我에 沒入하는 것이 아님은 無論이요. 그것이 實踐을 媒介로 함으로 自己를 客觀化하는 即 自己의 世界를 獲得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을 容易히 알 것이다. 여기에 나는 哲學的 精神의 發動의 現實性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四

以上論究한바는 各其時代와 其 國에 있어서 哲學의 問題를 其 歷史的 社會的 存在의 움지김에 即 다시 말하면 現實生活의 地盤에 直面할때에 課題로 받은 것이며 그 立場이라는 것은 現在自己가 處하고있는 이러한 歷史的 情勢와 本來의 自己自身과의 結合이라는데 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哲學한다는 것은 自己存在의 可能에 對하여 覺悟한다는 것에 不外하다는 것이 그 主要한 論點이었다. 그러나 問題는 依然이 結末을 짓지 못하고 끌고 있는

듯하다.

歷史的으로 規定된 情勢라는것을 恒常生長發展한다고 할가 우리의 生活은 何如튼 그 情勢의 途上에 놓여있는 것이며 그것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哲學의 問題가 自己의 生活과 無緣한것일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最初에 말한바 哲學이 多彩多樣한 構造를 보게 되는 必然의 理由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疑問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結局 哲學의 認識 또는 其 眞理로 말하면 普遍 妥當的이 아니고 歷史的 相對性을 가진 것에 不外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哲學的 眞理는 도리어 歷史的 變遷 其者안에 求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相對的이 아니고 普遍妥當性을 要求하고 있는 것 같이 말하였다. 萬一 그렇다고 보면 哲學의 歷史性과 普遍妥當性의 要求사이에 아무 矛盾도 없이 通過할 수가 있을가. 어떤 哲學이든지 各其 普遍 妥當性을 要求하고있음은 事實이지만 그러나 現實에 存在하고있는 哲學의 雜多性은 實로 混沌과 矛盾鬪爭의 關係를 떠나서 있지 않다. 그러면 어느 것이 果然 바른 것이라고 할가. 具體的 全體의 唯一한 哲學이라는 것은 없다고 할가. 眞實한 哲學은 結局哲學의 理念에 求할것이 아닌가 하는 問題가 다시 도라온다. 現實의 個個의 哲學은 이 理念을 追求하는 途程에 있는 따라서 不完全한 暫時的 眞理性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닐가. 希臘人과 같이 實在의 根底 即 永遠不易한 基準에 비치워 이 歷史的 現實의 生活을 쳐다보며 理解하고자하는 立場은 있을 수 없을가. 이러한 立場으로 말하면 所謂 無立場의 立場이라는 性質의 것이겠다. 이런 立場에 있어서 無論 우리의 現實的 生活은 有限하여 不完全한 것으로 봉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疑問으로말하면 結局實在는 무엇인가 하는 問題에 歸着한다는 循還을 보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 實在의 純相에 對하여서는 우에서 論하여 온 것이니 이 問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解決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을가. 一見하면 哲學의 歷史性은 哲學의 普遍妥當性을 破壞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나 그 反面 人間存在라는 것이 歷史的 情勢를 떠날 수 없는 것이며 哲學이 神의 눈에 보이는 知識이 아니고 어디까지든지 人間의 知識임에 限하여서는 우리는 歷史的이며 아니 그곳에 即 하여서만 普遍妥當性을 가진 哲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닐가. 우리가 超歷史的 存在가 아닌 以上 오직 歷史的 自省으로 自己哲學의 立場의 制限性을 알며 同時에 世界에 對한 自己의 地位를 自覺할 따름이다. 謙遜한 사람이 他人의 心情을 잘 理解하며 사랑할 힘을 가지고 있음과 같이 自己의 立場의 制限性을 自覺하는 것은 他人의 立場을 잘 理解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으로써 도리혀 全體에 通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닐가. 그때에 우리는 各其哲學이 必然的 聯

關을 가지고 있는 그 前提를 發見하게되며 그것으로부터 根源的으로서로 連結되어있는 其 通的 世界 따라서 問題를 볼 수 있을뿐더러 自己의 獨特한 問題를 가장 鮮明하게 意識할 수 있는 것이다. 哲學의 原理는 外部로 받는 것이 아니고 自己의 生活을 通하여 獲得할 性質이다. 外部의 原理와 一致한다는 것은 自己가 當한 特殊한 問題에 忠實하며 對答하므로 비로소 可能하다고 말할 것이다.

如何든 世界의 根本이나 人生의 發端 歸趣이나 結局 現在確立한 自己의 生存乃至人格이라는 것이 있음에 비로소 問題가 되는 것이요. 그것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움지길 수 없는 眞理이다. 그리고 그것은 自己의 同一性을 保持하면서 歷史的 情勢와 같이 움지기며 生長하여 나가는 存在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反復하여 말하기를 싫어하지 않는다.